

## 2025년 MSCI 시장접근성 점검 결과

최성락 | 자본유출입부장 (3705-6213)  
이다영 | 연구원 (3705-6183)

- 6.19(현지시간) 발표된 MSCI 의 연례 시장접근성 점검\* 결과, 한국은 공매도 항목에서 평가가 한단계 상승. 작년에 “개선 필요” 또는 “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”로 지적된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가 그대로 유지

\*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: 외국인투자자들의 해당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18 개 항목별로 “++”, “+”, “-“로 측정. 이후 1)경제발전도, 2)시장규모, 3)시장접근성을 종합하여 해당 시장을 분류(선진국, 신흥국)

- 공매도 항목을 제외하면 작년과 평가가 동일. 총 18개 항목 중 “++”(문제 없음) 8개, “+”(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) 4개, “-“(개선 필요) 6개

\* '25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에 따른 결과

〈표1〉 한국 시장에 대한 2025년 MSCI 시장접근성 점검 결과

리뷰 항목	'24년 6월	'25년 6월	비고
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개방성			
투자자 자격 요건	++	++	변경 없음
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수준	++	++	”
외국인 투자가능 잔여 주식	+	+	”
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	+	+	”
자본유출입 편의성			
자본유출입 통제 수준	++	++	”
외환시장 자유화 수준	-	-	”
시장운영 체계의 효율성			
시장 진입			
투자자 등록 및 계좌 설정	-	-	”
시장 조직			
시장 규제	++	++	”
정보 흐름	-	-	”
시장 인프라			
청산 및 결제	-	-	”
수탁	++	++	”
기재 및 예탁	++	++	”
거래	++	++	”
양도성	-	-	”
증권 대차	++	++	”
공매도	-	+	개선
투자상품 가용성	-	-	변경 없음
제도 체계의 안정성	+	+	”

자료: MSCI. 주) “++”: 문제 없음. “+”: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. “-“: 개선 필요

- MSCI는 '23년 이후 시행된 일련의 외환·자본시장 개선 조치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했으나, 실제 시장에서의 이행 수준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
  -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, 외환 거래시간 연장,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와 LEI 도입 등 정책 조치들을 소개하였으며, 시장참가자 피드백을 통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 노력들도 긍정적으로 평가
  - 다만, 외국인 등록 절차는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(operational hurdles)이 존재하고, 실제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 옴니버스 계좌나 장외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의 효과도 제한되었다고 지적
- MSCI는 6월 24일(현지시간) 연례 시장 분류를 발표할 예정이며, 한국 시장이 선진국 분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대상국(watch list)에 오를 필요

〈표2〉 2025년 한국 시장접근성에 대한 항목별 코멘트(“+”, “-” 항목)

세부 항목	'23년 및 '24년 6월	'25년 6월
외국인 투자 가능한 잔여 주식	<p>[23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MSCI Korea IMI 지수 중 0.3%~1.0%가 외국인 투자제한의 적용을 받음</li> </ul> <p>[24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년과 동일</li> </ul>
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	<p>[23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문 공시가 개선되었지만 모든 기업들이 항상 공시하지는 않으며,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종종 글로벌 투자자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</li> <li>- '23년 1월 금융위는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 방안('24년 1단계 시행, '26년 2단계 시행)을 발표</li> <li>- 동 조치의 영향은 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철저히 평가될 예정</li> </ul> <p>[24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진전이 있었으며, 동 조치의 영향은 본격 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철저히 평가할 예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문 기업 정보들이 항상 사용한 것은 아님</li> <li>- '23년 단계적 영문 공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. 1단계는 금년 만료. 2단계는 감독당국의 검토 후 '26년부터 시행 예정</li> </ul>
외환시장 자유화 수준	<p>[23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물 역외시장이 없으며, 역내 시장은 제약 존재</li> <li>- '23년 2월 기재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('24년 하반기 시행)을 발표</li> <li>- 동 조치의 영향은 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철저히 평가할 예정</li> </ul> <p>[24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진전이 있었으며, 동 조치의 영향은 본격 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철저히 평가할 예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3년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발표 이후 RFI의 국내시장 참여 허용, 거래시간 연장, 일시적 원화차입(오버드래프트) 도입 등 개선이 진행</li> <li>- 감독당국은 '25년초 시장 발전을 위한 추가 조치 도입. MSCI는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</li> </ul>
투자자 등록 및 계좌 설정	<p>[23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등록이 의무. 상당한 서류 부담 존재</li> <li>- '23년 1월 금융위는 외국인 등록제 폐지 방안('23년 12월 시행)을 발표</li> <li>- 동 조치의 영향은 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철저히 평가할 예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등록이 의무</li> <li>- 신규 투자는 '23년 12월부터 LEI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, '24년 6월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LEI 서류 부담을 경감</li> <li>-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LEI로의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 기</li> </ul>

	<p>[24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'23년 12월 외국인 등록제 폐지 이후 신규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법인식별기호(LEI)를 사용. MSCI는 LEI의 활용 수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</li> </ul>	존 계좌들이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옴니버스 계좌 활성화도 제약
정보 흐름	<p>[23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 기업들은 배당락 이후 배당금액을 공시하며, 예상 금액은 보통 공시되지 않음</li> <li>- '23년 1월 금융위와 기재부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('24년부터 시행)을 발표</li> <li>- 동 조치의 영향은 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철저히 평가할 예정</li> </ul> <p>[24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으나, 아직 소수의 기업들만 개선된 배당절차를 따름. 진전은 있으며, 동 조치의 영향은 본격 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철저히 평가할 예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배당락 이후 예상 배당금액을 공시하며, 예상 배당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시되지 않음</li> <li>- '24년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행되었으나, 기업들의 이해 수준은 제한적</li> </ul>
청산 및 결제	<p>[23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옴니버스 계좌로 통합 거래가 가능하지만 결제 당일 여전히 최종투자자별 보고 의무 존재</li> <li>- '23년 1월 금융위는 옴니버스 계좌 개선 방안('23년 12월 시행)을 발표</li> <li>- 동 조치의 영향은 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철저히 평가할 예정</li> </ul> <p>[24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3년 12월 옴니버스 계좌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으며,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4년초 일시적 원화차입 허용, 옴니버스 활성화 추진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결제 과정은 대체로 ID당 진행.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는 제한적(while the regulations are in place, the utilization of these mechanisms remains minimal)</li> </ul>
양도성	<p>[23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물 이체 및 장외거래에 제약이 존재</li> <li>- '23년 1월 금융위는 장외거래 규제 완화 방안('23년 12월 시행)을 발표</li> <li>- 동 조치의 영향은 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철저히 평가할 예정</li> </ul> <p>[24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3년 12월 장외거래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되었으며,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3년 제도개선의 일부로 장외거래 사후 보고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, 실제 활성화는 제한적. 시장참가자들은 실무상 어려움(execution remains challenging)이 있음을 지적</li> </ul>
투자상품 사용성	<p>[23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식시장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존재</li> </ul> <p>[24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동</li> </ul>	- 좌동
공매도	<p>[23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칙적으로 공매도 가능하나 KOSPI 200 및 KOSDAQ 150 이외의 종목은 공매도 제한</li> </ul> <p>[24년 6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3년 11월 전종목 공매도 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항목에 대한 평가를 “+”(큰 문제 없으나 개선 가능)에서 “-”(개선 필요)로 변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5년 3년 공매도 금지 해제. MSCI는 관련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.</li> </ul>

자료: MSCI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 
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문의: 02-3705-6213 혹은 slchoi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